

10월경기 “반짝” 국산약재 상승세 꾸준 수입물동량 “잠잠” 천마값 지난달비 5천원폭 “경충”

국산약재 시세가 지난달(9월)보다 평균 1천원 많게는 3,4천원 폭으로 오름세다.

10월 1일부터 규격품 제조업소들의 물량구입이 늘고, 추석명절을 전후 경기가 다소호전되는 경향을 띄면서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국산약재 시세가 꾸준한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물량 구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산수유,시호,맥문동,구기자등이 그 대표적 품목. 인진, 익모초등 풀잎약재들도 지난5월 수확당시 시세가 너무 형편없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 버려둔 탓에 생산량이 부족,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산 약재도 마찬가지로. 지난여름 이상기온현상과 엘니노 태풍피해로 중국 산지에서의 약용작물 작황도 부진한 편이어서 수입약재 시세도 오름세다. 그래서인지 수입 물동량은 다소 뜸한편. 국산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국산약재 상보합세 경향은 본격 수확기에 돌입한 생산농민들에게 모처럼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보약 성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짝 경기’일 뿐이며 이달 중순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다소 꺾일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기자 이달부터 햇것 출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긴장마비에 이은 가뭄으로 작황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짝시세는 근당(6백g기준) 1만2천5백원선(청양산),진도산은 1만4천원 선이다.

청양산지에서 거래되는 시세도 1만2천원선으로 지난달 보다 3천원 폭으로 경충 뛰어 올랐다.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10월26일 기준)입찰가는 근당 1만4천원선.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천마 국산 천마시세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상승폭선을 그려가고 있다. 지난 9월말 당시 근당(6백g기준) 1만4천원선에 도매거래되던 천마시세가 경동약령시장내에서 10월말 현재 짝으로 근당 1만9천원선(최상품)까지 거래되고 있다. 수입천마시세 상승으로 수입산 반입이 뜸해지면서 국산천마값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천마재배를 하고 있는 생산농민들에게는 출하적기. 물량도 귀한편이어서 괴경만 실하다면 좋은시세에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지난 10월26일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 입찰거래된 천마시세는 근당 1만3천원선이다.

황금 대부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약재 시장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9월말 당시 근당(6백g기준)7천8백원 선이던 황금시세가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도매로 근

당 7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의 입찰가도 근당 7천5백원 선이다. 전남여수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황금은 판로가 없어 산지에 재고량이 상당량 남아 있는 형편이라고.

맥문동 한달 사이 큰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품목중의 하나.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1만4천원선(거심) 1만2천5백원 선(막막)에 거래되고 있으며 밀양산 거심은 1만5천원 선이다. 생산자 손에서는 이미 떠난 지 오래인 맥문동이 이처럼 한달 사이에 폭등한 원인은 생산량이 예년비 대폭 감소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간상인들의 장난질이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 청양과 경남 밀양이 맥문동의 주산지이지만 물동량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청양의 중상들. 밀양산도 대부분이 청양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

맥문동은 청양 산지에서 근당 1만2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수준. 대구한약재도매시장에서 지난달 26일 거래된 입찰가는 근당 1만4천원 선이다.

황기 1년근 소황기 시세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소황기(통)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6천원 선(최상품). 한달 사이에 1천원 폭으로 올랐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햇것이 출하돼 나올 예정이지만 면적감소와 수해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예년 출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소황기의 경우 최상품은 귀한 편이라고.

한편 대황기는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아 시세등락폭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3년근은 1만6천원 선에, 6년근은 2만3천원 선으로 지난달과 같은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의 입찰가는(10월26일

기준) 1년근 소황기가 근당 4천5백원 대황기가 1만8천원 선이다.

시호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통자로 1만8천원선. 1만7천원선에 거래되던 지난 9월 보다 1천원이나 올랐다.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10월26일기준) 입찰가도 근당 1만8천원 선이다. 산지에서는 1만7천원 시세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산수유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거의 없는 산수유는 물량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최상품기준 1만5천원 선이고 9월말 시세인 1만3천원, 중품은 1만2천원대보다 2천원 폭으로 경충 올랐다. 10월26일 기준 대구한약재 도매시장 입찰가는 근당 1만4천원 선이다. 수요량에 비해 국산물량이 많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 일부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발빠르게 물량을 확보해 놓고 값을 마음놓고 올리는 등 횡포가 심해 비난을 사고 있기도.

이달 열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산수유 수입량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산수유 시세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중국 산지 역시 엘니노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편이어서 물량은 그리 넉넉치 못한 편이라고.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될 전망이다.

당귀 햇것 출하량이 예년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토당귀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4천원(통), 5천원(절) 선으로 지난달비 8백원~1천원 폭으로 오름세. 재배면적 감소에다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밭이 잘 안들여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량도 예년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10월26일 기준 대구한약재 도매시장에서의 입찰가는(10월26일

지황 증류주 · 엑기스 개발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한방에서 보약의 첨가재료로만 한정되어 쓰이던 지황을 이용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취득하는등 생약 수요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백섭)는 지난 95년부터 지황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연구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지황엑기스와 증류주, 침출주, 발효주, 엑상차,과립차등 10여종의 제품을 개발하고 그중 지황증류주와 엑기스 2건에 대하여 최근 특허를 취득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지황은 보혈, 강장, 진정, 빈혈, 토혈, 하혈, 자궁출혈, 결핵성 쇠약등에 효과가 있고 특히 남성의 정력증강 및 체력보강에 좋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상실증에 대해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제품중 지황증류주는 3단 혼합 증류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수차례 시음회와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저장기간이 길수록 그 맛과 향이 우수하며, 음주후의 두통과 숙거복감, 숙취 등의 후유증이 없어 제품

을 생산화 할 경우 대량소비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백섭 소장은 “특허취득을 계기로 지황증류주의 맛과 향을 보강하는 고급증류주 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지황증류주와 누룩미생물의 항암성, 항종양성, 면역부활성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관련학과와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민관 합작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나 사업희망농가 또는 지황생산자 단체등의 사업희망시법적근거안에서 특허기술이전 제품생산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